전능하셔서 믿기가 어렵다

(창43:1~34)

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12.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15.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나머지 부분에서 요셉과 형들이 이번에는 베냐민을 포함해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요셉이 자기 집으로 형들과 베냐민을 불러서 거하게 저녁식사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면서 <전능하셔서 믿기가 어렵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전능하셔서 믿기가 어렵다'
명절 때가 되면 종종 들리는 소식들이 있는데 형제, 친족들 간의 유혈참극입니다.
대부분이 부모의 재산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고, 어떤 때에는 묏자리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가 재산이 없었더라면 이런 유혈참극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많이 모은 능력 있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자식들 간의 다툼이에요. 부모의 능력이 있을 때에 살아생전에도 자식들이 바라는 것이 많고, 그 바라는 것이 체질이 되고 고질병이 되어버립니다.
자식들이 보기에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바라지도 않고,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자식들이 부모님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능력 있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역시 자녀들이 드리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더 받으려는 전략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님 자신보다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어느 자식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효심이 충만한 자식 말고는 대동소이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받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리면,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껏 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게 됩니다. 부모는 줄 만큼 주고 더 이상 주면 안 될 것 같기에 주지 않는 것이지만, 자식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과 재산이 없는 부모님 경우에 자식들 마음에서 파악이 되면, 사춘기 때에 잠깐 돈 잘 버는 이웃 부모를 부러워하며 원망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리 능력이 없는 부모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챙기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이대로 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준 자식일수록 마음에 부모님이 없고, 능력 없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많이 챙기게 됩니다.

믿음의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내 아버지이시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면 우리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경우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많고, 하고 싶은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은 세상에서, 전능하신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전능하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이신데 내 사는 모양이 이 꼴이면 원망이 왜 없습니까?
원망이 없다면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종교 행위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느끼는 내 필요에 겨워서, 내 희망에 겨워서 종교 행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르셨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나와 상대하는 그런 하나님아버지로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천지가 다 당신의 것인데, 우리 사는 꼴은 형편없고 꼴꼴 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원망이 있어야 하고, 원망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아버지를 인격

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정도 밖에는 못 주시는가에 대한 원망이 극복되면서 참 신앙이 됩니다.
이 원망의 과정이 없고 원망을 극복하는 과정이 없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속마음으로 그 분이 살아서 나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이 원망이 극복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미국, 러시아도 창조하셨고,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서 12억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그들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그 원망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왜 이렇게 밖에는 못 사는지, 코앞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기에 지독하게도 안 주시는지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극복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의 차원으로 가야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야곱의 진퇴양난(進退兩難)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앞의 42장에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첫 번째로 요셉과 대면하는 중에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 시므온이 풀려나려면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고 이것이 총리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야곱으로서는 일찍이 요셉을 잃은 아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데 다시금 아무 생각 없이 보냈던 시므온이 붙잡혀 있고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니 베냐민도 잃을지 몰라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기근은 계속 되고 아들들의 가족들과 손자들과 모든 식솔의 양식을 구할 곳이라고는 전 지역에서 애굽뿐인데 야곱의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갑니다.
오늘 읽지 않은 6절에 보면 야곱의 절규에 가까운 신경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쓸데없이 베냐민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시므온이 잡힌 것을 보면 지금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는 판이고,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라헬이 낳은 두 자식 중에서 요셉은 이미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을까 신경질을 내고, 곡식을 구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 잃고 시므온 잃고 베냐민까지 잃을 수도 있으니 진퇴양난으로 속

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참 못돼먹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형들에게 좀 엄포를 놓다가 형들이 떠나기 전에 사실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며 끝마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야곱이 이렇게 속이 타들어가는 진퇴양난의 과정이 없었을 것인데, 나이 많은 연로한 아버지를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야곱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민다움이 무효가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야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역사를 기록해나가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느냐?
42장에서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42장 (1절에)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라고 계속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장에서는 희한할 정도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2장에서 계속해서 '야곱'으로 나오고, 43장에서 '이스라엘'이라며 특별히 대조가 되게 썼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아주 깊게 고려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얍복 강에서의 씨름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눈여겨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그에 비견될 만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경우에 비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뿐이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로 하여금 선민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즉,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은 적들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풀게 하실 수 있고, 원수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베풀게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그런 하나님과 붙어서 씨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시므온은 볼모로 잡혔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합니다.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만 되고, 자식은 지켜야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마치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얍복 강가에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또 한 번 겨루어서 싸워 이기면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축복 주도권을 놓고 겨루어서 싸워 이긴 자인 이스라엘의 입에서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이제까지의 야곱 생애의 사전 속에서는 없는 말입니다.
이 말 한 마디가 뜻하는 것은, 17살에 노예로 팔린 요셉이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가 야곱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밀어 붙이시는 추진력을 발휘하셨고, 야곱의 삶에서는 그 정도의 힘으로 야곱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추락의 힘으로 작용하십니다.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는 높은 자리로부터, 축복 주도권에 대해서 두 손 다 놓고 항복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며 마지막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자식도 축복이고 곡식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도 이제 중단합니다. 한 번 붙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가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셔서 원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잃게 하신다면 잃을 것이고 자식을 잃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에서로부터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하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에서에 의해서 내가 가진 축복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이루시는 일로써 잃게 된다면 잃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아들을 잃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어려운 것은,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안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고 그 분이 아버지인데도,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고 내게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믿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의 반쪽이고, 나머지 반쪽이 붙어야 완성되는데 그 나머지 반쪽은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빼앗아 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괴롭고, 주시지 않는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기어코 내게서 빼앗아 가시고,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는 소중한 것들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비로소 이 땅에 사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선택 받았다는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선택받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고 좋아할만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귀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돈, 건강, 자식, 명예, 인기 다 좋지 않습니까?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안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보기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만사가 형통하도록 선택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좋아할만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선택 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그 사랑을 표

현해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는 반쪽짜리 믿음의 기도이고, 완성된 믿음의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불신앙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어떤 소중한 것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는 위험한 느낌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축복 주도권을 내가 쥐고 얍복 강가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전까지는 놔드리지 않겠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원래 하나님의 권리 안에 속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사라를 이방 왕들에게서 지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라를 지켜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사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키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마음에 붙들고 있다면, 자식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고 자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심지어 나보다 먼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며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지금 형들과 만나는 시기에 39살쯤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때까지 요셉을 끼고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었다면 요셉은 뭐가 되었겠습니까? 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히브리 부족의 11번째 아들로 끝났을 것인데,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음에서 죽인 것처럼, 마음에서 요셉이 죽었으니 사랑하려야 할 수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요셉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품고 자꾸 간섭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실 수가 없어요.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뜻을 따라서 지켜내십니다.
지켜 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데, 이걸 자꾸 지켜달라고 하니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선민으로 선택했는데도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 내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동원해서까지 세상 사랑을 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중에는 야곱에게 요셉이 진짜로 죽은 것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이삭을 바쳤지만, 야곱은 자발적으로 바칠 기미가 안 보이므로 빼앗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얍복 강가에서의 씨름이 재연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마음에서 붙잡고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 잃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다. 전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내 아들들을 잃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같은 변화인데, 야곱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빼앗아 가시기 전에, 빼앗아 갈 위험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 소중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갖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십자가에서 쫓아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지켜내시고 섭리를 적용해가실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십자가사건입니다.

전능하셔서 믿기 어려운 하나님을 십자가 생활화로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전능하심 때문에 원망이 생깁니다. 이 원망을 극복하고 온전한 자리에 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죽으시며 이루신 십자가복음의 제로원 원리를 체득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